

베이비붐세대, 61.6% 귀농·귀촌 의향

보건의료시설·생활여건 이주시 고려 응답자 44.1%는 전남 귀농·귀촌 의향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6명은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으며 보건의료와 생활 여건이 이주의 중요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전국 10개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6%가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74년 생(2022년 기준 만 47~66세)으로 약 1677만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32.5%를 차지한다.

귀농·귀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보건 의료 시설이 58.7%로 가장 높았고, 생활 여건 및 지역 기반시설 37.7%, 안정적 수입원과 소득 27.8% 순으로 나타났다.

예상 은퇴 시기는 '1~6년 이내'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40%에 달했다. 이 가운데 60%는 '5년 안에 귀농·귀촌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응답했다.

귀농·귀촌하고 싶은 주요 이유는 정서적으로 여유롭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61.3%),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좋아서(33%), 도시 생활에 회의와 스트레스를 느껴서(31.1%)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으로 완전히 이주하는 것(32.7%)보다 주말 또는 특정 계절에만 거주하는 것(45.5%)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4.1%는 전남으로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좋아서(51.4%),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비·생활비 등이 덜 들 것 같아서(37.7%),



농촌마을의 인정과 공동체 문화가 유지되고 있어서(16.3%)를 꼽았다.

귀농·귀촌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점은 개선할 점으로 조사됐다. 귀농·귀촌 정부 지원정책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89.1%인 반면 안다는 응답자는 10.9%에 불과했다.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은 "베이비붐 세대는 농촌 지역의 인구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고령인 기준 주민과 귀농·귀촌하는 청년 사이에서 세대적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귀농·귀촌

의 의사를 가진 베이비붐 세대에 맞는 특화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노년기에 접어드는 베이비붐 세대가 병원 때문에 귀농·귀촌을 포기하지 않도록 전남도 전반에 걸쳐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나아가 전남권 의대 신설 등과 연계한 공공병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순천경찰·참수리어머니회, 청소년 지원 업무협약

순천경찰서(서장 최병운)는 지난 12일 참수리어머니회와 함께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경찰·여수광양항만공사, 업무협약

지난 11일 광양경찰서에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치매노인 등 실종자 조기발견 및 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드론 수색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광양=심종섭기자



나주경찰, '선진 교통 문화정착'위한 현장을 찾아가는 교통간담회

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지난 12일 나주시 봉황면사무소에서 봉황면장 및 이장단 대상으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기동취재본부



보성경찰·보성강수력발전소, '안전한 보성만들기 업무협약'

보성경찰서(서장 오임관)는 보성강수력발전소 회의실에서 심재경 보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김재순 보성강수력발전소장 등 참석해 가운데 '안전한 보성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기동취재본부



완도해경, 단체현혈로 코로나 혈액부족 위기에 힘 보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코로나로 인한 혈액부족 위기에 힘을 보태고자 경찰서 청사와 전용부두에서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를 이용해 경찰관과 의무경찰이 단체현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광주전남병무청, 봄맞이 광주천 환경정화 활동

광주전남병무청(청장 최규석) 행복더하기 봉사단은 4월 12일 주민들이 깨끗한 광주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봄맞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김재환기자



'30년의 외침 지키자 수요시위'

대학생겨레하나 관계자들이 13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건지광장에서 '수요시위를 지키기 위한 대학생들의 목소리'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코로나 블루' 아이들 위험...초5·6 32% "더 우울"

교육부, 2월11~18일 학생 34만명 설문조사 中 10.6%, 高 14.7% 우울 '중등도 이상' 해당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3명 중 1명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우울한 마음을 더 크게 느낀다는 교육 당국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 직전인 지난 2월 초 조사에서 중등도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는 학생이 12.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산하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지난 2월11~18일 초·중·고 학생 34만1412명을 대상으로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학생 정신건강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학생들이 바깥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정신 건강이 악화했다는 '코로나 블루' 현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교육 당국이 코로나19와 직접 관련해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울감과 불안감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우울(불안)해졌다'는 문항을 제시하고 아니다, 모름, 그렇다 3가지 답을 고르도록 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우울해졌다(그렇다)는 초등학생은 평균 27.0%였으며, 불안해졌다는 학생은 평균 26.3%였다.

특히 초등 5·6학년에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우울해졌다(그렇다)고 답한 학생이 전체 32.4%, 그렇지 않다(아니다)는 42.7%였다. 불안해졌다는 답변은 34.8%, 그렇지 않다는

46.6%였다.

학부모가 대신 응답한 초등 1~4학년에서는 자녀가 코로나19 전보다 우울해졌다 25.4%, 불안해졌다 23.8%로 나타났다. 우울해지지 않았다는 57.3%, 불안해지지 않았다는 63.4%였다.

같은 조사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는 '지난 2주일 동안 7일 이상 우울(불안)감을 느낀다'는 문항을 제시했다. 이 문항에 그렇다(중등도 이상)고 답하면 평소와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본다. 정신과 전문의들도 이 문항과 상담 등을 고려해 우울증을 진단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 문항에 그렇다고 답한 중학생은 우울 10.6%, 불안 6.0%였다. 고등학생은 우울 14.7%, 불안 8.5%로 조사됐다. 심리·정서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도움을 준 사람이 없었다는 학생도 17.6%로 조사됐다. 가족(67.9%), 친구(26.7%)에 이어 17.6%로 세 번째로 답변 비율이 높았다. 교사는 10.6%, 전문가는 4.1%에 머물렀다.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가 늘어났는지 묻는 문항에서 '늘어났다'고 답한 비율은 평균 43.2%였으며, 초 5·6이 43.9%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생 43.7%, 중학생 39.8%, 초1~4(학부모) 44.5%였다.

친구와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답변은 평균 31.5%, 선생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답변은 평균 20.3%였다. 학부모가 답한 초1~4에서 교육관계와 선생님과의 관계가 악화됐다는 답변이 각각 43.2%, 26.0%로 가장 높았다.

서선숙기자

신속항원검사 계속 무료?...당국 "계속 유지 여부 논의 중"

"수가 유지시키 논의 중"

정부가 현재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비에 대한 수가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시기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오전 비대면으로 열린 프레브리핑에서 전문가용 RAT 무료 검사비를 언제까지 수가로 유지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RAT 검사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킨 적은 없다"며 "(수가 유지) 시기 등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동네 병·의원에서 실시되는 전문가용 RAT 검사 비용은 의료 수가 형태로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검사자는 각 병원의 진료료에 해당하는 금액(5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병·의원 전문가용 RAT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는 방안은 당초 13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5월 13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이뤄지면 무료 RAT는 11일 중단됐다.

병·의원이 전보다 많은 양의 코로나19 검사를 소화하게 된 만큼 당분간 검사비 지원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행 규모가 3월 말 이후 감소세로 유지되고 있고, 현재 1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되거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완화될 경우 검사비가 본인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생겼다.

손영대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추후 가정 등에서 선제검사용으로 활용되는 RAT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이 계절독감(인플루엔자) 검사키트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에 무료로 검사키트를 지원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400만 개 이상을 이번 달 지원할 예정이고, 지자체가 나름대로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 하향과 격리기간 단축 등을 포함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대응 체계에 저위험군 접촉자에 대한 RAT 권고 완화안은 담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이슬기자